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SNOW ANGEL
가제 : 스노우 엔젤
저자 : Lauren St. John
출판사: Zephyr
발행일: 2017년 10월 5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블루 피터 도서상 수상작, 세계 도서의 날 선정작 등 다양한 소설로 전 세계적으로 *100*만 권 이상 판매고를 올린 인기 작가의 신작**
*** 영국의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아티스트 캐서린 하이드의 아름다운 흑백 삽화 포함**
*** "상실과 도피, 집, 마음, 눈과 산에 얽힌 영광의 이야기. 정말 재미 있게 읽었다." – 카네기 상 수상 작가 캐서린 런델*(Katherine Rundell)***

활기 넘치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외동딸로 엄마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란 마케나는 늘 산 곁에 머물며 세계 각지의 관광객들을 이끌고 케냐 산을 누비는 아빠처럼 되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다. 과학 선생님이라 미신도 믿지 않고 모든 일은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엄마와 달리 상상력이 풍부하고 틈만 나면 몽상에 빠지곤 하는 마케나의 머릿속에는 아직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케냐 산에서 펼쳐질 미래의 모험에 관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그래서 1월의 어느 날, 아빠가 마케나의 첫 번째 등산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등산도 처음이고 엄마 없이 아빠와 단둘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처음이라 왠지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첫 발을 디딘 케냐 산은 늘 상상했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산은 엄마와 같아. 잘한 일은 칭찬해주고 잘못한 일은 꾸중을 하지.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준단다." 아빠의 말처럼 산속에서 마케나는 푸근함과 뭐든 다 털어놓고 싶은 편안함을 느꼈다. 그런데 앨리스 호수 쪽으로 향하는 두 시간 남짓 걸릴 등반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케나는 잠깐 해변에 들러 세수를 하던 중 저 뒤편에서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했다. 금빛으로 빛나는 작은 몸체가 분명 풀숲 사이를 조용히 걷고 있었다. 숨죽인 채 그쪽으로 살금살금 걸어간 마케나는 머리를 푹 숙이고 물을 마시는 동물을 발견했다. 붓처럼 풍성한 꼬리, 턱이 뾰족하고 귀가 꼭 박쥐처럼 쫙 펼쳐진 얼굴에 보드라운 금빛 털이 풍성하게 몸을 감싼 그 동물은 바로 여우였다. 때마침 마케나를 찾으러 온 아빠 목소리에 보석 같은 두 눈으로 쳐다보던 여우는 놀라 쏜살같이

달아났다. 그 짧은 만남은 마케나에게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강렬한 행복을 선사했다. 얼마 후 아무 것도 걱정할 것 없었던 나날들이 와르르 무너져 전혀 다른 세상에 내던져졌을 때, 이 기억은 마케나를 붙든 큰 버팀목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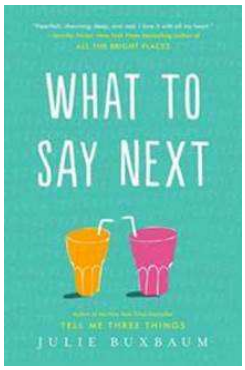
첫 등산과 여우와의 만남을 잊지 못하고 아빠처럼 산을 누비며 살기만을 고대하던 마케나는 오로지 목숨을 부지할 방법만 찾아내야 하는 절박하고 위험천만한 빈민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에볼라가 엄마와 아빠를 덮쳐 무참히 목숨을 앗아가 버린 것이다. 오갈 곳 없는 마케나는 굶주림과 공포, 더러운 뒷골목을 헤매며 하루를 살아 남을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도저히 적응할 수 없을 것만 같던 빈민가도 사람들은 꿈과 야망, 희망을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어린 마케나는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다. 도심 속에서 인간이 깔아놓은 보도 블록을 뚫고 자라나는 야생화처럼 절망 속에서도 질긴 생명력으로 버텨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케나는 '스노우'를 만난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키스마스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색소결핍증 때문에 눈처럼 새하얀 피부를 가진 그 특별한 아이를 마케나는 스노우라 불렀다. 발레를 사랑하는 스노우는 자신과 같은 존재는 살아있기보다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면서도 언젠가 큰 무대에서 조명을 받으며 마음껏 춤을 추며 다른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날이 오기를 꿈꾸며 살아간다. 마케나는 이처럼 밝고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기에 금세 스노우에게 마음이 끌렸다. 두 소녀는 서로의 꿈을 공유하며 늘 붙어 다니는 단짝친구가 된다.

겨우 찾은 행복은 불도저가 들이 닥쳐 빈민가 곳곳을 허물어뜨리기 시작하면서 또 다시 예기치 못한 불행으로 바뀐다. 결국 마케나와 스노우는 혼란 속에 서로를 찾지 못하고, 스코틀랜드에서 온 간호사이자 자원봉사자인 헬렌에게 구조된 마케나는 그녀를 따라 낯선 나라로 향한다. 케냐처럼 높다란 산에 둘러싸인 고원지대에서 다시 새 출발을 기대했건만 마케나의 굳은 희망은 분노와 실망감, 슬픔으로 되돌아온다. 외롭고 주저 앉고 싶은 순간마다 아빠와 함께 처음 올랐던 산과 작은 여우, 그리고 스노우와의 우정을 떠올리던 마케나는 "산은 늘 그 자리에서 너를 기다린다."는 엄마의 말을 떠올리며 눈 덮인 산을 오르기 시작한다.

케냐와 스코틀랜드를 배경으로 한 소녀가 갖은 고난을 겪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강인한 정신력과 소중한 우정, 사랑, 상상력, 그리고 기적을 믿는 마음 속에 담긴 구원의 힘을 아름답게 그린 특별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로렌 세인트 존(Lauren St John)은 짐바브웨에서 작가, 환경운동가, '본 프리 재단(Born Free Foundation)'의 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미스터리 시리즈 『Dead Man's Cove』로 2011년 블루 피터 올해의 도서상(Blue Peter Book Award)을 수상했다. 베스트셀러에 오른 『One Dollar Horse』 3부작과 영화로 제작될 예정인 『The Glory』 등 YA 소설을 여러 편 발표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총 100만 권 이상 판매됐다.



제목 : WHAT TO SAY NEXT
가제 : 우리의 대화
저자 : Julie Buxbaum
출판사: Delacorte Press
발행일: 2017년 7월 11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해외 *8*개국 판권 계약 체결**
*** *SLJ.COM* '올 여름 읽을 만한 책', *POPSUGAR* '올해 최우수 *YA* 도서'로 선정**
*** "유대감의 힘, 연민의 아름다움을 그린 책. 작가는 상실과 슬픔을 세밀한 감성과 지혜, 진심을 담아 유머, 통찰력과 조화를 이룬 이야기로 완성했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Orphan Train*』의 작가 크리스티나 베이커 클라인**
***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를 통해 작가는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보기 드문 천재성으로 다루는데 성공했다. *YA* 도서 목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책." – 셰리 레다, 일리노이주 윌메트 공립도서관**

아무리 오랫동안 가까운 사이로 지낸 친구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슬픔과 절망을 더 깊게 만드는 건 평생 지울 수 없는 기억이 될 큰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없는데 자꾸 이제 그만 벗어나라고 강요하는 세상과 주변 사람들 때문인지도 모른다. 키트 로웰은 사랑하는 아빠가 교통사고로 하루 아침에 세상을 떠난 뒤, 그 말없는 압박감에 숨이 턱 막힌 상태로 한 달을 견뎠다. 이미 장례식에서부터 아빠의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이 건네는 위로의 말들이 키트의 귀에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로만 들렸다. 분명 좋은 곳으로 갔을 거다? 아빠처럼 선하고 착한 사람은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보다 하늘나라가 어울린다?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위로들, 학교에서 키트와 마주치기만 하면 아빠 일은 참 안됐다고 기계적으로 이야기하는 아이들, 모두 악의가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견딜 수 없었다. 키트가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괴짜 데이빗이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는 학교 식당 테이블에 느닷없이 찾아가 털썩 옆에 앉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도 불리는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아이, 데이빗에게 메이플뷰 고등학교 학생이 된 후 무려 622일만에 점심을 누군가와 함께 먹는 날이 찾아왔다. 심지어 그 대상은 데이빗이 누나와 함께 몇 년 전부터 작성해온 '친구 수첩'에 "학교에서 가장 예쁜 아이"라고 명시한 키트였다! 그 날 아침에야 사물함 근처에서 키트의 단짝친구 두 명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고 키트의 아버지가 얼마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데이빗은, 예고 없이 옆에 앉은 키트를 잠시 쳐다보며 그 아이들이 숙덕이던 말과 달리 키트가 별로 엉망진창이 되어 보이기는커녕 평소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고 느꼈다. 인사 한 마디 없이 샌드위치를 집어 든 키트에게 데이빗은 대뜸 "너네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라고 말을 걸었다.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데이빗은 자

신에 대해서건 상대에 관한 것이든 진실은 거리낌없이 이야기하는 아이였다. 일부러 노력하지 않고서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것이나 이런 불편한 특징이 늘 홀로 친구 없이 지내게 된 원인이라는 것을 데이빗은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지능지수가 168이나 되는 명석한 두뇌 덕분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감정을 잘 읽지 못하는 데이빗이 악의적으로 속고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누나가 철저히 교육해준 덕분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입에 발린 위로와 과도한 동정으로 대하는 것과 달리 빙빙 돌리지 않고 쿡 찔러 진실을 이야기하는 데이빗의 말이 키트는 묘하게 마음에 들었다. 평소와 같이 패션이나 연예인, 옷차림에 대한 쓸데 없는 수다를 떨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무작정 늘 혼자인 데이빗의 옆에 앉은 것뿐인데, 그 한 번의 식사는 두 사람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그 날부터 키트는 데이빗과 매일 함께 점심을 먹기 시작한다. 학교에서 꽤 인기 있는 축에 속했던 키트가 전교생의 왕따 데이빗과 갑자기 가까워지자 모두가 황당해했지만 키트는 별로 개의치 않았다. 오랫동안 수없이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도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지 않는 친구들보다 누구보다 속내를 꿰뚫어보는 듯한 데이빗과 대화를 나누는 편이 훨씬 마음이 편했다.

뜻밖의 우정이 점점 깊어가던 어느 날, 키트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비롯한 학교 성적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데이빗에게 아빠의 사고를 둘러싼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보자고 제안한다. 모두가 사고라고 이야기하지만, 키트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사실 정보를 철두철미하게 정리해서 분석하는 일에 데이빗만한 적임자는 없었다. 퍼즐과 수수께끼를 사랑하는 데이빗은 당장 그러겠다고 승락한다. 그러나 사고에 얽힌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힘들게 찾은 두 사람의 우정과 막 피어나기 시작한 핑크빛 기류는 모두 없던 일이 될 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키트와 데이빗 모두에게 회복하기 힘든 충격을 안겨줄 수 있다.

결국 데이빗은 아빠가 사고 당일 운전을 한 것이 아니며, 차에 혼자서 타고 있지 않았고, 조수석에 앉은 아빠 대신 운전대를 잡은 작은 체구의 여자가 사고를 일으켰다는 답을 밝혀내고, 이 진실은 그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비밀들과 키트와 데이빗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겨 준다.

신경성 질환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 서투르지만 똑똑하고 마음 깊은 데이빗과 백인인 아버지, 아시아 지역 인디언 혈통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키트가 각각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맞닥뜨려야 하는 차별과 곤란한 상황들이 사고의 전말을 밝히려는 데이빗의 집요한 노력과 함께 곳곳에서 등장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줄리 벅스바움(Julie Buxbaum)은 YA 데뷔작 『Tell Me Three Things』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전 세계 18개국에 번역, 출간되며 큰 화제를 모은 소설가이다. 25개 언어로 번역된 소설 『The Opposite of Love』, 『After You』도 평단의 호평을 받고 25개 언어로 번역됐다.